



부처님께 올리는 음악공양인 범패는 불교의식때 펼쳐지는 깨달음의 소리와 몸짓이다.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등 5개 단체 공연  
전통문화 뿌리 찾기 대중화 좋은 계기될 듯**

스님들이 춤과 노래를 한다. 그 춤은 깊고 차분한 구름과 불가 특유의 기와 연주가 합해지면서 송고한 화엄 세계를 표출한다. 바로 범패다. 서울과 지방에 산재해 있는 그 범패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저녁 7시30분 '민족문화의 원류를 찾아서'란 주제로 국립극장내 하늘극장에서 공연되는 '범패 페스티벌'이 바로 그것이다. 참가팀은 서울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전주 영산작법보존회, 마산 불모산영산재 보존회, 서울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 10호보존회 등 5개 단체로 총 5회에 걸쳐 공연이 펼쳐진다. 범패란 부처님께 올리는 음악공양으로 영산재같은 큰 불교의

식이 있을 때 스님들이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진행하는 깨달음의 소리와 몸짓이다. 범패는 한국불교가 전래된 경로에 따라 중국과 티베트 등지의 불교음악에 영향을 받았으나,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만의 독특한 불교문화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불교를 탄압했던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범패도 서서히 자취를 감춰, 이제는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로 지정받은 10여명의 스님만이 범패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대가들의 진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무대가 바로 이번 범패 페스티벌이다.

이번 공연을 국립극장과 공동으로 기획한 모아엔터테인먼트 경영체 씨는 "범패는 정가, 판소리와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성악으로 꼽히는 귀중한 음악문화 유산"이라며 "우리 전통문화의 뿌리를 찾고 대중화시킨다는 점에서 이번 무대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02)2280-4115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 깨달음의 소리 몸짓 큰 마당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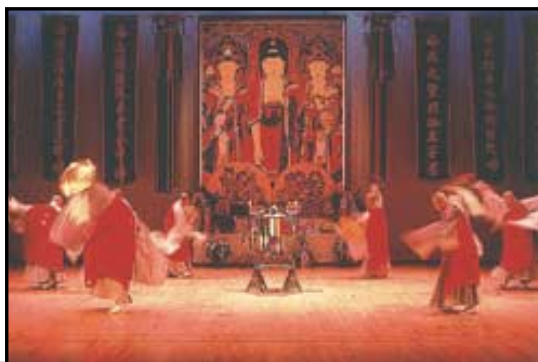
**■ 조계종 불교어산작법학교  
'범패의 작업' (7월 20일)**

불교어산작법학교는 조계종에서 어산범패와 작법을 교수하는 유일한 종립 특수교육기관으로 1997년 5월 설립되었다.

이번 공연에서는 학교장인 인목 스님과 성마 스님(중앙승가대 교수), 법안 스님(영산재 이수자) 등 30여명의 범패승들이 출연해 리듬과 화성이 없는 단성가락으로 주로 절에서 재를 울릴 때 부르는 불교의 성악인 훗소리와 깃소리 그리고 착복무, 바라무, 법고무의 세 종류로 나뉘는 불교무용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범패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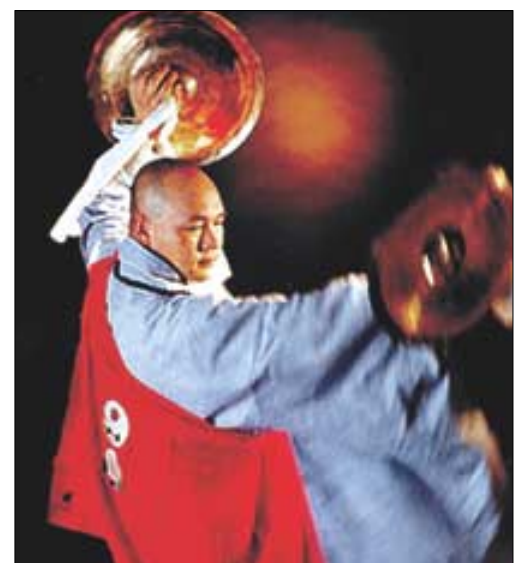
7월 17~21일, 국립극장



**■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 10호  
보존회 '현충제' (7월 21일)**

능화 스님(인천 구양사 주지)을 비롯해 방주·정암·법안 스님, 최경희, 박종희, 최귀진 등 인천 지역 전통 무용인들이 대거 출연해 애국선열들의 명복을 범패와 작법을 통해 빌어주는 내용인 '현충제'를 선보인다.

특히 어려운 한문가사를 쉽게 번역해 범패를 부르고 인천지역만의 특색인 바라춤과 나비춤을 대중적으로 작업한 안무를 선사한다.



**■ 전주 영산작법보존회  
'영산작법' (7월 18일)**

완주 봉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주 영산작법은 전주 출신인 일을 이재호 스님이 26세때 봉서사 강보담 스님의 문하에서 깊이 연수를 거듭하여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번 공연에는 전라도에 전승되는 범패와 작법을 석정 스님(전북무형문화재 18호 작법기능 보유자)을 비롯해 이수자인 해안·해정·현덕·법정 스님 등이 시련 신중작법 패불이운 운수상단을 펼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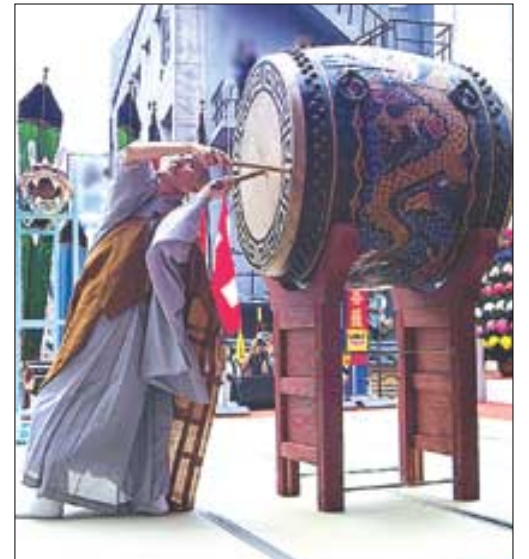
**■ 마산 불모산 영산재보존회  
'불모산 영산제' (7월 19일)**

통영과 고성지방을 중심으로 전승된 창계사, 화엄사 중심소리를 우담 스님과 해담 스님이 경남 일원에서 주석하면서 계승 발전시킨 것이 불모산 영산제이다.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제 22호로 지정돼 있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서는 마산 백운사 주지 석봉 스님(예능보유자)이 경암·해공·원공 스님 등 10여명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패불이운과 대례왕공, 상축, 화청, 장엄 엄불 등 서울의 영산제와 다르며 특히 팽가리를 대나무로 된 나무틀에 매달아 들고 치는 것이 특징이다.

**■ 조계종 전통의식연구원  
'영산제' (7월 17일)**

서울 상도동 홍원사 주지 동주스님이 어장(魚丈)이 되어 정오·법우·도안 스님 등과 함께 흥고춤 신중장불패불이운 등을 하면서 깃소리로 인성(仁聲)이나 거명산을 부르고, 훗소리로는 다계 북청계 등을 부른다. 물론 바라춤, 법고춤, 나비춤도 작법무로 추는데 이는 비구니 스님들이 맡는다.

이번 공연에는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4명과 현재 영산제를 사사받고 있는 6명 등 10명의 스님이 출연한다.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 신서안내**

**진희이 소강절 두 분 선생의 비급!**

**▶ 후천을 연 대한민국**

주역으로 풀이한 대한민국 100년사  
무극시대(1910~1944)  
→ 태극시대(1945~2004)  
→ 황극시대(2005~ )  
※ 신국판 384쪽, 16400원.  
저자: 권원 운상철.  
노무현대통령 탄핵은 운명인가?  
5400년을 주기로 반복되는 초승의 혼란  
45년 8월의 광복부터 2004년 8월말까지의 60년은 태극시대에 해당하므로 모든 것이 불안정한 시기다(1편).  
6.25동란은 음과 양이 교류하여 미어를 잉태하기 위한 전쟁이었다(170~175쪽)  
올 8월말까지 막가파식으로 다루어야 나라가 잘된다(280~282쪽)  
9월 2일 신서의 시작경선의 행사가 시작되면, "도저히 아래서는 안되겠다"는 공강대가 걸려지고 동일을 열 庚畝의 지도자가 모습을 드러낸다(3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뻗어가는 水路, 신의주에서 유럽으로 뻗어가는 陸路, 나진에서 북극으로 뻗어가는 精神路의 삼태극이 이루어지면 人極人壽시대가 열린다(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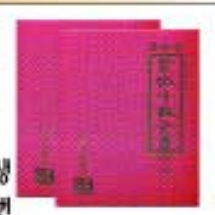
**▶ 실전 자미두수**

※ 변형신국판 700여쪽.  
상하 2권, 36,000원  
저자: 이두 김선호.  
2004년 1월 12일 출간  
"다 이상의 비법은 없다"고 자부하며...  
자미두수계의 선구자 이두 김선호선생의 13년 풍부한 임상경험의 비법을 이루려 사심없이 공개한 책, 사람의 명운을 놓고 "이때 왜 이 사건이 벌어지는가?"에 대해 일일이 별들의 관계를 추론해 나간 책. 이 두 권만 다 소화한다면 누구나 자미두수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음.



**▶ 자미두수 전서**

※ 4x6배판 1,700쪽.  
상하 2권, 100,000원  
(명반 CD포함)  
자미두수의 완결판, 진희이선생의 비급 자미두수전서를 완전 번역. 역자: 이두 김선호.  
"자미두수 입문" "심곡비결"이 7월 초에 출간됩니다.



**▶ 하락리수(河洛理數)**

4x6배판, 총 1900여쪽  
상하 1집 100,000원  
저자: 김수길운상철  
(부록:하락리수 쉽게보기)  
진희이 선생이 창안하고, 소강절 선생이 완성한 하락리수의 상세한 해석과, 작례 풀이법을 설명. 자신의 시주에 따라 일생의 운과 년운 월운 일운의 길흉을 판단할 수 있는 학문으로, 정이천 같은 철학자와 소동파 같은 문인도 그 정확성에 감복하여 일생의 지침서로 삼았다는 놀라운 적응력의 주역활용서.



**CD 하락리수(河洛理數 프로그램)**

생년월일시를 입력 하지마자 시주 견지와 선천운 후천운을 즉시 확인하는 물론 12조간에 따른 길흉을 클리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또 평생 운에 이어 대운은 년운 월운 일운까지도 세세히 볼 수 있고, 청원결과 주역경, 공렴점수 등이 추가된 종합 주역운세풀이입니다.



※ 가격 300,000원  
총괄: 운상철.  
2004년 6월 중보.

**▶ 편해매화역수(編解梅花易數)**

※ 4x6배판 중보판  
20,000원  
저자: 김수길운상철  
2004년 3월 20일 중보판 발행.



"일기는 소강절"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될 정도로, 주역의 대가이자 정미의 최고봉이었던 소강절 선생 그 정미의 진수와 대가들의 비결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각종 점령에 따른 점치는 방법과 해석을 실전위주로 정리. 기존 편해매화역수에 소강절선생의 절자수, 글자점, 황극계수조수에 대한 내용을 증보하여 소강절 점학에 대한 이해를 높임.

**▶ 근간안내**

자미입문  
심곡비결  
비서삼종  
주역입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